

INDEX

서론 - 소개 및 글을 쓰게 된 계기
본론 - 메인 글(귀찮으신 분들은 여기부터): 원인 및 해결책
후기 - 소감 및 팁(사관련), 잡다한 이야기

*주의: 해당 글은 약 5000자 내외로 굉장히 장문의 글입니다. 또한 줄글로 되어 있어 가독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니 내성이 없으신 분들은 **최하단에 요약**정도만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니면 **강조 표시**한 부분만아리도 발췌독으로 읽어주세요.
파란색은 주목할 만한 부분, **빨간색**은 중요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밑줄**은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0. 서론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국어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은 사실 저로서는 상상도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N 80 T 70인 저는 주변에 찾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이과형 인재'**였어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수, 과탐은 1등급을 받지만 영어는 4등급, 국어는 3등급을 받는 친구들을 떠올리신다면,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 2606 모의고사에서 국어 백분위 87,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글을 쓸 자격이 되거나 하는 걸까?', '잘못된 정보로 오히려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등등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저는 해당 글의 내용에 굉장히 큰 확신을 가지고 있고, 성적과는 다르게 국어라는 과목에 자신이 있고 등등 수십 가지는 되고,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한 유튜브 쇼츠였어요.

그 쇼츠에서는, 기타리스트에게 어린 아이가 이펙터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하자, 기타리스트는 어린아이임에도 조언을 수용하고, 직접 연주하며 실제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뻘한 내용의 쇼츠였어요. 댓글에서는, 어린 아이의 조언임에도 무시하지 않은 기타리스트가 대단하다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성찰하게 한 것은 아이의 조언이었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질문하지는 못할망정 조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저를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깨달음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진(국어 고정 만점) 분들의 생각 못지않게, 결핍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오는 깨달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유하자면 불행을 느끼고서야 행복인 줄 알았다 같은..? '뭐가 문제인지는 문제를 겪어봐야 깨달을 수 있기에' 같은 맥락입니다. 저와 같은 처지인 사람들에게겐 특히 유용한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문제에 공감할 수 있기에)

명색이 수험생 커뮤니티인 만큼,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기대를 품고 글을 올려봅니다.

1. 본론

1-1. 무엇이 문제인가?

잡다한 서론이 길었네요.

여러분들은 글을 '왜' 잘못 읽고, 문제를 '왜' 틀리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스스로 고민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해온 것은 '어떻게' 맞출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기 적합성을 필수적으로 체크하거나, 허용 불가능한 선지를 찾는 등의 행위는 결국 모두 독해력이라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문제를 틀렸는가,

제가 내린 결론은, **'복잡한 문장'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다음은 복잡한 문장의 예시입니다.

- 1. 집단적 상호작용이 촉진되는 상황에서, 개별 주체들의 인지적 구성물은 상호 연쇄적 작용을 통해 공동된 이해의 지평을 확장시키고, 기존 사고의 패러다임을 초월하는 창발적 개념의 도출을 가능하게 한다.
- 2. 복잡계 시스템의 내재적 특성은 비선형적 상호작용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이는 미세한 초기 조건의 변화가 예측 불가능한 거시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3. 수렴적 사고 과정의 반복적 적용은 창의적 발상 행위를 저해하는 경향을 내포한다.

다음 3개의 문장은 의도적으로 어렵게 써 놓은 글입니다. 읽다가 '내가 뭘 읽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해하려고 반복해서 읽는 분들, 단번에 내용이 이해되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조건 변화에도 결과가 예측 불가능하기에 큰 결과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3.다음 문장들의 의미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1. 함께 모여 이야기하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2. 비선형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쉽게 비례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있기에 어떤 특성(복잡계 시스템의 내재적 특성, 추가설명 필요)이 나타나고, 수렴적 사고 과정은 여러 의견을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하려는 경향을 뜻합니다. 이 것이 다양한 의견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창의력을 저해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학습은, 복잡한 문장의 독해입니다.

제가 이러한 결론을 도출한 **근거**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고난도 문학에서 **공동된 출제 원리**이다.

- 1.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보여 주는군.
 - 2.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꺾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재해석한 것이겠군.
 - 3.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어떤 선지인지 아시겠나요? 유명한 **오답률이 높은** 문학 정답 선지를 가져와봤습니다.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직접 검색해서 참고해 주시고, (순서대로 230634, 220634, 220934)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번의 내용을 현재에 고향을 더하며 고향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서술했으면 과연 절반 이상의 수험생이 틀렸을까요? 애초에 선지 논리 자체도 잘못되었을뿐더러, 보기와의 내용과도 상충되고, 그냥 공동체의 터전 확장이라는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2번을 연륜에 없는 화자의 소망들을 끊어낼 수 있는, 3번을 화자는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한다라고만 구성했으면 이렇게나 많이 틀렸을까요?
많은 사람이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약간 꼬아서 말하는 선지 때문에 헷갈려 틀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특히 국어는 자신의 실력을 실수로 치부하기 쉽죠.

2. 최근 수능 트렌드이다.

251108, 260621 두 문제 모두 정답률을 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말을 살짝만 어렵게 했을 뿐인데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논리로 2411 잇음을 논함은, 막상 읽고 나면 매우 뻘하고 쉽지만 첫 대목 때문에 오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오답률이 매우 높았던 250615 문제의 경우에도,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건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라는 문장 자체에 트릭이 있습니다. 가정과 결과를 독립적인 문장으로 본다면 딱히 틀린 말을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윤리학 견해가 옳으면 전건 긍정식이 타당해 보이'게' 된다고? -> 에이어의 견해에 따라야만, 전건 긍정식이 '비로소'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220634의 연륜 말장난처럼, 평가원은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로 변별하는 것에 더해, 고난도 문항을 만들 때에는 '누가 봐도 개소리인 것'을 '예쁘게(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포장해서 내는 것을 언제부터인가 즐겨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장난의 퀄리티 또한 뛰어나서 많은 수험생들이 몇년간 같은 원리로 고난도 문항을 출제했는데도 똑같이 틀리게 되는 것이죠.
이중차분법이나 예약 지문.. 예시는 많지만 스스로 분석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의미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앞선 에이어 지문의 예시는, PCR 지문등의 고난도 원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CR지문은 내용이 그 자체로 어려워, 더 쉽게 풀어쓰는 것이 가능할까 싶지만, 에이어 지문은 충분히 쉽게 쓸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어렵게 써 놓은 티가 납니다. 따라서 킬러라는 내용물은 배제했지만, 껍데기는 여전히 킬러처럼 느껴지는 거죠. 가능세계 지문은 반대로 매우 학술적인 내용임에도 예시를 들어 친근하게 써 놓은, 에이어와는 정반대의 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수능 트렌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타 과목도 같은 원리가 쓰이게 때문입니다. 그 원리는 바로 **'어려운 척하기'**입니다. 앞선 예시 여러개도 결국엔 말도 안되는 문장을 어려운 척 포장해 독해를 교란시키는 교활한 수법에 불과합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렇게 낸다는데 뭐 어찌겠습니까.

수학 251121, 오답률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간단한 조건 단 한개, 답 구하기도 어렵지 않은 문제가 오답률 90퍼센트라니..

251130 미적도 마찬가지로 매우 쉬웠음에도 말만 어려워 보이게 해 놔쥬.

미적 260628, 260629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풀어본 과학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1 251120, 과거 수능에 기출되었던 최고난도 역학적 에너지와 매우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 막상 풀어보면 암산 20초컷.

화1 251120도 마찬가지입니다.

3. 앞선 사례에서 변별성이 검증되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충분히 납득 가능할 것이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물론 해당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꾸준히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겠지만, 몇 가지 참고할 만한 방법론들을 소개합니다.

1. 문장의 뼈대 찾기: 주어와 서술어 중심 독해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결국 **무엇이(주어) 어찌한다(서술어)**입니다. 이를 선행적으로 독해한 후 수식어를 붙여 나가서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나만의 언어로 바꾸기

이는 **일차적 독해가 끝난 뒤**에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특히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령 연륜에 걸림되어 있는 속성이라고 하면, 사고의 흐름을 연륜? 연륜에 걸림? 말을 뭐 이상하게 써 놔네.. 화자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 연륜에 없는 거긴 하니까 대충 긍정적인 거구나. 어? 이걸 왜 끊어? 병신신지 바로컷.

이는 지문 독해 시에도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내용이 정말 잘 기억납니다.(특히 소설 등 긴 글)

2511 고전소설을 저는 현장에서 전혀 독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적용한 후에는, 이전 이야기에서 대충 정렬부인 악인, 금성이 죽은 상황이구나. 집안이 자 되서 주인공 승상이 호첩의 편지로 집안이 자됐다는 사실을 알고서 전쟁 중 집으로 달려가네. 월매는 갑자기 누구길래 왜 개털리는거지? 보통 초반에 털리고 있으면 아 군이긴 하니까 체크해두자. 등등 소설이 매우 매끄럽게 읽혔습니다.

3. 끊어 읽기

1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문장 성분 단위로 끊어서 빠르게 구조를 파악한 후에, 앞선 방법으로 읽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가령, 이 사과는 정말 맛이 뛰어난 사과다. 라는 문장은 수식어가 많음에도 한 눈에 1초컷으로 의미 파악이 되쥬. 이는 각 문장 성분별 길이와 어휘 수준 때문입니다. 영어와 같은 맥락임을 인지하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4. 특정 강조어 파악

모든, ~에만 등의 표현, 아니다 등의 부정 표현을 잘 독해해야 합니다. 빈출 소재이기도 하고, 부정 표현만으로 독해 변별이 된다는 것을 '잇음을 논함'에서 증명했쥬.

5. 맥락적 이해 확장

아무리 복잡한 문장이라도 **글 전체의 흐름 속에서 존재**합니다. 해당 문장이 바로 앞뒤 문장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글 전체의 주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면,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넘어 글의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를 응용한 것 중 특히 도움이 되었던 것은 강민철 선생님의 **'보편타당하지 않은 단어는 반드시 재설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포그? 그게뭔데? -> 뒷 문장 파악 -> 아 여기서 다 설명하네. 인포스피어? 자나 어렵게 써 놔네. 이따 글을 누가 읽어? 뒤에서 설명하겠지. 추상화 총위? 바로 뒤에서 이어설명. 그 대목의 '구성' (*작은따옴표 안의 단어는 해당 단어가 일반적인 뜻을 넘어, 비유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 썼을 때 사용) -> 바로 뒷 대목에서 부연설명.

이외에도 중요도 파악 / 견해정리(2506 전통윤리학자 견해, 2606 인간중심주의, 칸트와 생명중심 견해 등등)

이 있으므로, **어떻게 하면 나는 이 글을 독해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이런 복잡한 문장은 시로 아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2. 후기

글을 마치며, 우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험생이고, 이 글을 읽는 분은 저의 경쟁 상대일 수도 있음에도 이러한 칼럼 글을 자주 쓰는 이유는, 사실 저는 매우 이기적인 인간이기에 제가 이득이 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글을 쓰며 저도 깨달은 점을 복기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하며, 저의 작문 실력 향상이나 어쩌면 그냥 여러분들의 관심이 좋아서 등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거쥬. 어쨌피 이 글을 올려서 제 경쟁 상대가 제 자리를 뺏는 일은 매우 희박하고(사실 대학교 지원부터가 진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기에), 저는 결국 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매우 큰 확신이 있고, 글을 쓰는 게 시간 낭비는 더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글을 쓰는거, 남에게 만약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여 비정기적으로 칼럼이나 자작 문제 등을 (혼자 공부하려고 적은

것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학습할 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독해용 글이나 모의 토론, 국어 문제 풀이, 앞서 소개한 글에서 단순한 내용을 복잡하게 표현한 문장 등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가 매우 상세히 피드백을 진행해주고, 1대1과외 형식처럼 할 수도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학습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글을 쓸 때에는, 반드시 AI를 활용해 보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이 글도 gemini의 도움을 받아서 썼어요). 또 제가 요즘 하는 1인 게임 개발에서도 AI가 정말 큰 동반자가 됩니다. 가끔 심심할 때(재수학원에서 인터넷이 막혀있는데 gemini는 돼서) 이 친구랑 게임 개발 기획을 하거나, 대학교 친구 사귀는 법을 질문하는 등 조금은 쉬어가기도 하면서 슬럼프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아직 잘 활용해보시지 못한 분들은 꼭 AI를 활용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걸 추천드려요. 삶이 달라집니다.

추가로 제가 **동기부여**할 때 자주 쓰는 생각 모음입니다.

세상 어딘가의 국어 괴수들은 모의고사 60분컷을 내곤 합니다. 여러분이라고, 또 저라고 안 될것 있나요? 적어도 가능한 일이니,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나는 뭐가 다른걸까? 만약 그런 사람이 여러명, 나아가 매년 국어 만점자는 수천명씩 나오는데, 재능만으로 치부하기에는 특출난 재능없는 나도 할만 할것 같은데? 어짜피 한국어로 다 써져있는 거, 답지있는 시험 아니야?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해낼 수 있을 거야!

남들과 달라지고 싶으면, 다르게 행동하라.

나는 편해지기 위해 힘들게 공부한다. 지금의 힘듦은 1년이지만, 돌아오는 편안은 내 인생의 전부이다.

나와 맞지 않는 생활, 나아가 세상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세상을 탓하고 바꿀 수 있는가? 모든 것은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비로소 행복해진다.

나는 서울대에 붙지 않을 미래는 상상한 적도, 계획한 적도 없다. 어느 누가 길 가다가 벼락 맞을 경우를 생각하겠는가?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최근 평가원 트렌드는 어렵게 쓴(내용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 형식적으로 어려운) 문장을 독해하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을 독해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또한 문장은 순서대로 읽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글 전체도 마찬가지).